

우울한 우치동물원

2억 들인 '마스코트' 수컷 기린
 짝짓기 후유증으로 죽어
 암컷 '아린' 1년만에 다시 외톨이
 AI·구제역에 내달 개장도 못해



이렇게 다정했는데... 광주우치동물원의 최고 스타였던 수컷 기린 '마린'(오른쪽)과 암컷 기린 '아린'이 지난해 다정하게 지내 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난 8일 '마린'이 세상을 떠나 현재 '아린'이 홀로 남아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우치동물원이 슬픔에 잠겼다. 지난해 3월 용인 에버랜드에서 장가 온 수컷 기린 '마린'이 결혼 11개월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도 42일만에 전남에서 또 발생, 꽃피는 춘삼월 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물원 마스코트 '마린' 사망=우치동물원은 지난해 2억원을 들여 수컷 기린 '마린'(마술과 같은 매력을 지닌 기린)을 광주로 데려왔다. 2011년 남편과 딸을 잇따라 떠나보낸 암컷 기린 '아린'(아름다운 기린)을 위해서였다.

새 가족이 된 '린커플'은 단숨에 우치동물원의 마스코트가 됐다. 동물원 측도 이들에게서 2세를 얻을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2세 육식이 결국 화가 됐다. 짝짓기를 하던 마린이가 엉덩이 관절에 부상을 입고 쓰러졌고,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숨진 것이다.

동물원 측은 4살 마린이가 지난 1월말부터 3~4차례 일어나지 못하는 증상을 보여 약물을 처방한 뒤 중장비를 이용해 일으켜 세웠지만 지난 8일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마린'은 올해 4살로 암컷 기린인 '아린'보다 10살이 어리다. 또 키 4.5m에 몸무게는 1200kg으로 사람에 빗대어 말하면 10대 성장기 청년인 셈이다. 동물원 측은 성년인 아린보다 키가 70~80cm가량 작은 마린이 짝짓기를 위해 무리하게 점프를 하다가 고관절에 부상을 입고 뒷다리가 벌어져 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동물원

측은 약물을 투여해 응급조치를 했고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은 증상이 이틀에 한번 꼴로 반복됐고, 처음 쓰러진 지 10일 만에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마린의 사육사는 "키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다 보니 1t이 넘는 체중 탓에 뒷다리 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주저앉았다"며 "중장비 등을 동원해 3차례나 일으켜 세웠는데도 결국 주저 앉고 말았다"고 밝혔다.

쓰러진 기린의 경우 혈액순환 장애로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마린의 사인은 고관

절 부위 근육 총·출혈, 다발성 장간막 림프절 종대 등이다. '아린'은 4년 만에 맞이한 새 남편 '마린'을 또 다시 떠나보내고 사육사에 홀로 쓸쓸히 남아 있다.

◇AI·구제역 여파 70일째 문 닫아=하루 평균 1만명이 찾는 어린이들의 놀이터 우치동물원은 아직도 문이 닫혀 있다. AI·구제역 여파로 인해 벌써 70일째다.

마린을 떠나보낸 슬픔을 겪었지만, 우치동물원은 꽃피는 춘삼월에는 문을 활짝 열어 방문객을 맞을 참이었다. 땀방울이·침팬지·볼곰·수리부엉이·가비알악어 등 총 134종 730마리가 어린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해남에서 또 다시 AI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3월 개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다음달 초 철새들이 이동을 마치면 이로부터 21일간 경과를 지켜본 뒤 개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난해 12월20일 이후로 석달째 동물원 문이 닫혀 있다. 개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주말이면 100통이 넘게 온다"며 "AI가 다시 발생해 3월 개장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철새들이 북상하고 AI 경과를 지켜본 뒤 4월에서야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기자 ej6621@

결국... 조선대 차기 이사회 공백 사태 돌입

학내 갈등 속 후속대책 못세워...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촉각'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25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 부존재 사태에 직면했다.

조선대는 지난 23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올해 예산과 교원 임용 등 29개 안건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최대 현안인 차기 개방이사 선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학내 구성원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한 개방이사 3명, 구재단 측 인사 3명, 교육부와 학교 측 인

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조선대는 교수·직원·총동창회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법인 이사회 간 이견으로 개방이사 추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사회는 지난달 초 개방이사추천위원 5명을 선임해 대자협에 통보했지만, 대자협은 이들 5명에 대해 '편중된 인사'라며 개방이사 추천권 위임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조선대에 보낸 공문을 통해 "25일까지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지 못

하면 현 이사회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을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공백이 길어지면 교육 당국은 임시이사 파견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물러난 후 2009년 말 21년 만에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가 선임됐다. 학내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2010년 17기 이사회가 출범했지만 학내 갈등이 계속됐다. 2014년 2기 이사회가 구성됐지만, 학교 자치기구들이 원했던 '구 경영진 완전 축출'에는 실패해 학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집지기자 dok2000@

흑산도서 나포된 중국 어선 담보금 4억 납부 '사상 최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사상 최고인 4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이 어선은 지난 16일 흑산도 거제도 해상에서 어업지선에서 나포되자 중국어선이 폐거리로 몰려들어 탈취하려 한 문제의 어선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거제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선적 100t 저인망어선 요단어 23952호(승선원 11명)에 담보금 4억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나포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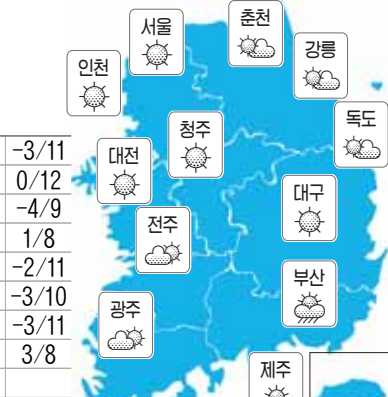
해돋이 07:05 해질 07:24
 해짐 18:26 달짐 19:09

봄이 오려나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주	호린	뒤	맑음	-1/12	보성	호린	뒤	맑음	-3/11
목포	포	호린	뒤	맑음	0/10	순천	호린	뒤	맑음	0/12
여수	수	호린	뒤	맑음	3/11	영광	호린	뒤	맑음	-4/9
나주	주	호린	뒤	맑음	-4/11	진도	호린	뒤	맑음	1/8
완도	도	호린	뒤	맑음	0/12	진주	호린	뒤	맑음	-2/11
구례	례	호린	뒤	맑음	-4/11	군산	호린	뒤	맑음	-3/10
강진	진	호린	뒤	맑음	-2/12	남원	호린	뒤	맑음	-3/11
해남	남	호린	뒤	맑음	-4/10	흑산도	호린	뒤	맑음	3/8
장성	성	호린	뒤	맑음	-2/11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1.0~1.5	북~북동	1.0~1.5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매우높음
감기	관심
체감온도	

물때

목포	간조		만조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07:52	02:30	02:30	15:04
	20:20	15:04	09:55	22:03

주간 날씨

28(화)	3/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	☁	☁	☀	☀	☀	☀
-1/10	2/11	3/6	-2/11	-1/13	2/13	3/10

무등산서 박쥐 집단 동면굴 확인

생태계 건강성 입증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에서 박쥐 집단 동면 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관박쥐가 동굴에서 거꾸로 매달려 동면하는 모습.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7월부터 박쥐류 조사에 들어가 관박쥐·우수리박쥐·집박쥐·검은집박쥐·문둥이박쥐 등 박쥐 5종의 출현과 서식을 확인했다. 지난 2014년 조사에선 관박쥐 서식 사실이 처음 확인되기도 했다. 공원사무소가 무등산에서 박쥐 집단 동면 굴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쥐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모기 등 해충을 하루에 3000마리까지 잡아먹는 등 인간에게 이로운 동물이다. 박쥐의 동면주기는 생태계 건강성 및 기후변화를 확인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형호기자 khh@

개학 앞 '호흡기 감염증' 주의보

'메타뉴모' 검출 2주만에 6배

개학기를 앞두고 호흡기 감염증을 일으키는 메타뉴모바이러스 검출률이 광주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표본검사를 한 결과 이달 둘째 주까지 평균 4.0% 수준에 머물렀던 메타뉴모바이러스 검출률이 셋째 주와 넷째 주는 23.7%와 25.6%로 크게 올랐다고 24일 밝혔다.

잠복기는 4~6일이며, 소아는 모세기관지염과 임상 증상이 유사하고 젊은 성인은 독감 유사증상을 보인다. 노인이나 면역력이 약한 환자는 상태가 심각하게 전환할 수도 있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서진종 감염병조사과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소아와 청소년층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령 영양섭취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가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가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